



ONE Ministry

Newsletter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 장애 사역 기관입니다.

In this Issue

From the Pastor

마가복음 1:14-15

From the Caregivers

황은경, 김근희, 김송이 선생님

From the Parents

세상이 아닌, 내가 가진 편견

From the Experts

장애인 부모가 기억해야 할 말

From the Precious

From ONE Ministry

원미니스트리 광고

Contributions



FROM THE PASTOR 원미니스트리 장진원 목사

마가복음 1:14-15 :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원미니스트리를 섬기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복음이란 영어로 Good News인 것처럼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처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전하신 주된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으므로 원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흔히들 생각하듯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축소된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없이 무기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진정 내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나부터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생소합니다. 요즘 세상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란 말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는 영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서 누구나 자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개성, 생활방식, 가치관 같은 것으로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히 여기는 자신의 나라는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추구해야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원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원미니스트리 지체들 모두가 오늘 하루도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FROM THE CAREGIVERS

원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황은경 선생님 꿈글 학교 믿음반 선생님, 음악 선생님
첼로와 작곡을 전공하시고,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튜터로 20년 이상을 섬겨 오셨습니다.

The Able 오케스트라가 존립 위기에 빠진 지금도 여전히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선생님. 선생님이 늘 끌고 다니시는
어린 아이 몸만큼 큰 가방에는 항상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합니다.

김근희 선생님

꿈글 학교 소망반 선생님, 오감 발달 선생님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김근희 선생님은 10년 이상을 교회 주일 학교 교사로
섬겨 오셨습니다.

원미니스트리에서 봉사 학생들에게 "제대로 안 하면 봉사시간 10분 뺏다!"
제일 호된 선생님이지만, 우리 아이들에 향한 마음만은 가장 따뜻하신
분입니다.



김송이 선생님

꿈글 학교 사랑반 선생님, 한글 선생님

신문 방송학과를 졸업하시고, 기독교 신문사 기자로 활동 하신 김송이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 대상 봉사 활동에 열심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습에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아무런 편견없이 아이들
을 바라봐 주시는 분. 흘러내린 코를 "흥!" 하고 쓱쓱 닦아주는 모습에
작은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쉽지 않은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닌 내가 가진 편견

정진이 (김예형 어머니)

지난 여름, 아들이 자신의 여동생이 남들과는 좀 다르고,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했던 원미니스트리 여름 캠프 봉사 활동, 생각보다 그 '다름' 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나름 마음을 놓고 있었나 봅니다.



원미니스트리 봉사를 다녀 오던 차 안에서...

“엄마, 다운 신드롬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씩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어떤 특징이 있어.”

아들이 문득 건넨 말이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장애인 형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들 입에서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지...다들 똑같은 유전적 요인이 있으니까, 다들 비슷한 점이 있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이제 15살이 된 아들이 '장애' 와 '비장애' 의 차이를 알아가고, 그 아이의 눈에도 남들과는 다른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징이 차별로 담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 어른이나 아이나...꼭 동글동글 테디 베어 같아.”

“행운인 거 같아. 평생 귀엽게 생겼으니까.”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의 친구도 한 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린 애들의 철 없는 소리였지만,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난 왜 아이들 입에서 당연히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신체적 특징, 그 '다름' 을 차별로 담은 것은 바로 저의 마음이었습니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다운 신드롬 친구들의 귀여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란 얼굴, 도톰한 입술, 볼록한 이마, 방글거리는 웃음...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 마음이 부끄러워 짧게 동의해 주고, 속으로만 길게 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편견 없는 시각이 오래오래 변함이 없기를...같이 나이 들어 간 장애인의 모습에서도 '다름'은 보되, '틀림' 이 아니기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다름' 이 부디 '아름다운 다름' 이기를...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말 10가지

장애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원미니스트리 가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Abilities.com 실린 심리학자 Dr. Darla Clayton 이 쓴 글을 정리했습니다.

힘들게 보내는 날들이 계속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날들이 이 10개의 말들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증상과 정도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미니스트리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2) You too deserve to be cared for. **당신도 대접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이들과 씨름하는 하루가 고된 부모님들이 본인만을 위한 시간은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끔은 대접받는 외식, 쇼핑 등, 당신 스스로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3) You aren't perfect—and that's ok! **완벽하진 않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약속을 까먹어도,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4) Keep your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을 유지하세요.**

가끔 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해서 본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보다는 유머감각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여 봅시다.

5) Make time for your marriage. **배우자를 위한 시간도 챙겨주세요.**

가끔은 아이를 배제하고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부모님의 행복지수가 아이에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뒷면에 계속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말 10가지

6) You will be obligated to make heart wrenching decisions.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가슴 아픈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마음 속으로 다지면서, 스스로를 훈련시킵니다.

미리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는 어려움들은 생각보다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7) Parenting a child with extra needs is like a marathon.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정말 긴 경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완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8) Forgive yourself.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장애아이를 키우는 건 당신의 생애에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당연히 많은 실수가 뒤따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관대해 지세요.

9) Trust your instincts. 당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지만, 당신의 아이에 한해서는 바로 당신이 전문가입니다.

10) Don't let typical parents get you down.
평범한 다른 부모들의 말에 상처받지 말아요.

그들도 자신의 아이를 자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는 소소한 자식 자랑에 상처받지 말고, 당신 아이가 하루 하루 이뤄내고 있는 기적을 당신도 자랑하세요.

장애인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 누구보다 위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말을 시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의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짧은 한 마디의 말로 큰 위로가 되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하루는 음악 선생님 피아노 소리에 눈을 지긋이 감고 음악을 감상하다가...

또 하루는 첼로 몸통에 귀를 가져다 대고 그 울림에 집중하다가...

드디어 세훈이가 첼로 활을 잡고 소리를 내기 시작한 날!

언젠가는 훈이가 작은 선율 한가닥 정도 연주해 주지 않을까...
행복한 꿈을 꾸니다.

모든 활동에 항상 적극적인 민용이가 어린 동생 예형이와 같이 있는 날은 모든 활동을 거부하고 caregiver를 자청합니다.

떨어진 블럭도 주워주고, 토마스기차 주고 받기 놀이도 해주고, 심지어 본인 수건으로 손 닦아주기 까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민용아..예형이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

"네!"



혜준이의 예쁜말

혜준이는 말을 예쁘게 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머리 너무 예뻐요."

음악 선생님은 혜준이의 칭찬에 토요일마다 머리를 좀 더 신경써서 다듬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

"머리 너무 예뻐요."

근희 선생님께서 혜준이가 또 예쁘게 말을 하네요.

충격으로 잠시 멍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머리 너무 예뻐요."

혜준이의 조련에 음악 선생님은 여전히 머리를 가다듬어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저 혜준이에 대한 음악 선생님의 "짝사랑"일 뿐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Academic 할 때는 Academic 하고!

운동 할 때는 엄청 힘도 쓰고!

민용이의 친절

민용이는 원미니스트리의 신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변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모습이 아름다운, 멋진 청년입니다.

어느날, 달랑 달랑 다리를 흔들며 앉아 있던 지우의 신발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 멀리 있던 민용이! 친절을 베풀 누군가를 항상 찾고 있던걸까요?

'툭' 떨어진 신발을 보자마자 바람같이 다가 온 민용이가 지우의 신발을 지우 발 밑에 똑바로 놉니다.

그리고 나서 씩 웃는 민용이의 뿌듯한 미소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값진 "친절함" 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추억의 과자 따먹기! 생각보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임!

힘 조절이 잘 안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풍선처럼 가벼운 물체를 살살 다뤄보는 활동은 좋은 감각 통합 놀이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해 보면서 자세도 교정하고, 나름 고난이도 동작도 따라해 보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아로의 적응력

분명히 아로가 좋아하는 돈까스인데, 어찌된 일인지 한 입도 안 먹으려하니 김근희 선생님은 당황스럽습니다.

배가 안고픈가 싶었는데, 혹시 소스가 싫은가 하는 생각에 소스없이 돈까스를 건네 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로는 소스 없는 돈까스는 입에 맞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로가 기특한데, 아...양이 좀 부족한가요?

"미안해, 아로야. 남아있는 돈까스에는 전부 소스가 묻어 있는데..어쩌나.."

아로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컵을 기울여 옆에 놓여 있던 냅킨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돈까스 먹다가 무슨 일??

너무 폭 젖지도 않고...

너무 퍽퍽하지도 않은...

아로의 완벽한 멀티슈가 완성되었습니다.

멀티슈로 돈까스 소스를 살살 닦아내고 다시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아로.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이용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정확히 잡아내는 아로를, 매의 눈으로 바라 보면서...

김근희 선생님의 머리는 "이것이 돈까스가 아니라...한글반에서 활용이 된다면..." 부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들의 우정

조금 늦게 도착한 훈이를 보자마자 재혁이가 서둘러 다가옵니다. 꿈글 학교에서 몇 번 봤다고 그들만의 유대감이 생긴 듯 합니다.

팔짱까지 끼고 이곳 저곳을 같이 다니는 모습에, 이 작은 센터에서 저 청년들의 우정이 자리 잡는구나...왠지 눈이 시큰합니다.

구원열차, 텐트 놀이, 테니스공 샷워등, 한바탕 놀이에 지친 친구들이 음악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에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눈을 지긋이 감고 음악을 즐기던 훈이가 옆에 앉은 경환이에게 슬쩍 손을 내밀습니다. 멋쩍어하면서도 손을 마주 잡아주는 경환이와 그 손을 조물락거리며 놓치 않는 훈이의 모습.

이렇게 25살 동갑내기 청년들은 나름 그들의 우정을 쌓아갑니다.

고립된 장애인, 혼자 남은 장애인,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은 여기 원미니스트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 말, 표정,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눕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자세를 잡아주고 틀어진 부분을 봐주시는 자세 교정 선생님!



처음 첼로의 울림에 기겁을 하던 진우도 이제는 "진우야, 첼로하자." 하면 어느 새 의자에 앉아 자리를 잡습니다.

종이 사랑이 유달른 재혁이가 유일하게 종이를 내려 놓은 시간.



인체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거운 첼로를 사이즈별로 두,세 개씩 들고 오시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첼리스트가 되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식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전해 집니다.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이나, 같이 웃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뉴스레터 팀으로 보내 주세요.

5월 원미니스트리 소식입니다.

▶ "꿈글학교 봄학기 종강식"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7일도 10시부터 정상수업합니다.

일시: 5월 7일 (토) 오후 1시

장소: 비전교회 대예배실

▶ Summer Camp 안내입니다. 원미니스트리의 여름 캠프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낼 수 있는, 부모님과 같이 계획하는 "특별한 여름캠프" 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시: 7월 11일 ~ 22일

장소: 예수소망교회

등록마감: 5월 14일

▶ 원미니스트리 Day Program 이름을 '두드림(Knock Knock)'으로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원미니스트리 Day Program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문을 두드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Day Program에 "두드림(Knock Knock)"이란 이름을 붙여봅니다.



5월 원미니스트리 소식입니다.

➤ 원미니스트리는 아이들을 위해 24시간이 모자란 어머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고자 합니다.

1) Day Program에서 스트레칭 및 자세교정으로 섬겨 주시는 김재웅선생님 (Biomechanics PhD.)께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클래스를 섬겨 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장진원 목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2:30

장소: 원미니스트리 센터

비용: 인원에 따라 결정

2) 원미니스트리 가족으로 서로 마음을 터 놓고, 가까워 지는 자리로 원미니스트리 수다방을 엽니다. 자녀들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부모님들은 준비된 차와 커피를 나누면서 더욱 견고한 원미니스트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5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2부터 4시까지

장소: 원미니스트리 센터

➤ 원미니스트리 뉴스레터 "소통"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진정한 이야기"로 채워지도록 도와 주세요. 부모님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소통"이 누구나 즐겨 읽는 우리들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1) 우리 친구들을 키우면서 가슴 한 켠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배 어머님의 이야기는 후배 어머님들에게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할 말 10개가 이번 호에 소개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릴레이로 이어 갑니다.

짧은 말 한 마디를 공유함으로 어찌면 오늘 울고 있을 다른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어 주세요.



Contribution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4월 후원자님

Michael Kim (\$500)

↳ (사랑이네 치과)

Sally 성희 김 (\$2000)

↳ (The Good Management)

곽공옥, 서귀애 (\$1000)

Esther Han (\$50)

이지숙 (\$50)

Lisa Kim (\$69.82)

장진원 (\$100)

조영숙 (\$500)

↳ (Sumo Hibachi & Wings)

DP PTA (\$220)

최경숙 (\$100)

최경훈 (\$100)

채정림 (\$20)

구자은 (\$50)

이영환 (\$84)

후원방법

1. Check 우편 발송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 : 334061943445

*Routing #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와

oneministryatlanta@gmail.com을

등록 후 송금.

4. Amazon Smile

Amazon Smile에 Charity 후원으로

ONE Ministry Atlanta, Inc를 등록하시면,

구매 금액의 0.5%가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조지아주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NE Ministry

Newsletter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Beautiful ONE" 을 꿈꾸는 원 미니스트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발달 장애 사역 기관입니다.

ONE MINISTRY CENTER

Director : 장진원 목사님



Tue-Sat, 9am-5pm

A : 302 Satellite Blvd #129

Suwanee, GA 30024

P : 470-350-1094

E : info@one-ministry.com

F : facebook.com/1000770455929

W : www.one-ministry.org

* Office Manager : 구자은 선생님

Main Missions

1.예배 및 선교 사역

-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사역 지원
- *The Able Orchestra

2.교육 사역

-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 : 꿈글학교
- *Summer Camp
- *주중 프로그램
: Happy Music, Joyful Art, SOL, BF Talk

3.복지 사역

- *발달 장애 성인 데이 프로그램
- *직업 훈련 프로그램
: I ♥ My Job!

